

<달라질 게 없는 오늘>

로그 라인: 혜원은 남자친구와 1주년 전날 남자친구와 헤어진다.

#1 낮

<방>

부은 눈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혜원, 눈 앞엔 전날 밤의 흔적이 테이블에 널부러져 있다.
낙서 된 달력, 휴지 조각, 쓰러진 액자, 옆에 있던 휴대폰을 집어드는 혜원
연인과의 통화목록을 확인한다.
연락처를 삭제하려다가 이름을 지우고 그냥 전화번호로 저장한다.

<거실>

TV를 켜서 괜히 채널만 돌려보는 혜원의 모습, 하지만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듯 하다.
선반에 액자 사진을 바라보는 혜원은 참지 못하겠다는 듯 일어난다.
사진을 모두 치우는 혜원 어디서 상자를 가져와서 그 안에 물건들을 하나, 둘 집어넣는다.
힘든지 바닥에 눕는다.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멍하니 바라본다.
다시 일어나 쭈그리고 앉아 무릎을 감싸 안는 모습
핸드폰을 꺼내서 카톡을 확인하는데 안 읽은 카톡들 사이 연인과 주고받은
메시지를 확인하는데 상대방의 1은 그대로 있다.
뭔가 결심한 듯 일어나서 방에 들어가는 혜원 옷을 갈아입고 나온다.
이후 집을 나서는 혜원

#2 해질 녘/ 이태원 다리

길거리를 걷는 혜원 커피를 한 잔 산다.
다리 위에서 남산타워를 바라보는 혜원의 주변으로 커플들의 모습들이 보인다.
다리를 떠나는 혜원

#3 밤/ 골목길

골목길에 서서 어느 집을 바라보고 있는 혜원 이내 허탈한지
그곳에서 남은 커피를 모두 들이키고 컵을 버리고 떠난다.
쓰레기봉투 옆에 떨어져 있는 구겨진 종이컵의 모습

#4 밤/ 집

케이크에 초에 불이 켜지고 불을 불어서 끄는 혜원
수저로 케이크를 통째로 퍼 먹으며 tv를 보는 혜원의 모습
이따금 웃기도 하며 tv를 보는 혜원

-달라질 게 없는 오늘-